

# 시장개방에 따른 닭고기 가격 및 수급예측

본고는 한국축산경영학회지 제10권 1호에 순천대 축산학과 조성균 교수가 발표한 내용중 “계열화 경영과 시장개방에 따른 육계 계열화 경영의 당위성 및 가능성”을 발췌 게재한 것이다. -편집자주-

## 1. 계열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일반이론적 견지에서 보면 생산에로의 진입과 퇴진이 용이하고 생산과정이 짧아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품목은 생산과 유통을 통합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integration)에 관해서는 다양한 정의와 논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독점적 기업이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일 목적으로 농업의 생산과 유통의 전과정을 장악하고자 하는 시장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통합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첫째, 농산물 시장의 성장은 말할 나위도 없고, 사료·자재·소축 등 생산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응하여 다수의 영세 농민들이 자금·기술·경영관리 능력 등 각 방면에 걸쳐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선진국을 보더라도 농업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은 이러한 제조건을 만족하는 부문에서 태동하고 있고 주로 축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육계(브로일러)는 전형적인 부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통합형태도 가장 심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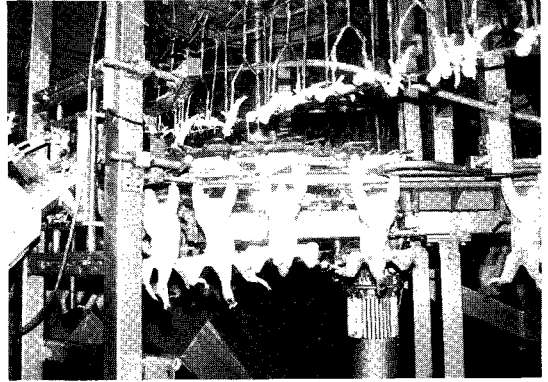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

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통합의 일반적인 형태는 사료의 전속이용, 생산물의 전속판매 계약이고, 이에 따른 신용제공 등이다. 또한 위탁생산, 가격보장 등 보다 진전된 계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료를 외상으로 판매하면 그 대금회수에 대한 보증으로서 생산물 판매도 계약하게 되고, 가격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는 등 계열주체(integrator)와 생산자(producer)의 관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육계 통합 경영형태는 육계를 사육하는 1차 산업에서 부화, 사료제조, 도계 등의 2차 산업과 판매 등 3차 산업 또는 닭요리 등 최종상품에 이르기까지 경영주체에 의하여 생산하는 체제인 일관경영체제(integrated production system)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 통합 형태는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으로 대별되는데, 수직적 통합은 경영의 각 부문이 계열주체에 소유되어 종속의 관계로 통합된다. 그리고 수평적 통합은 비슷한 단계의 경영부문이 각자가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통합하는 형태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영의 통합방법의 구체적 형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계열주체가 주요 생산 자재만 공급해 주고 생산과 판매는 생산주체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이다. 농용자재를 전담하여 공급하는 협동조합의 사업유형 같은 것으로 이러한 통합형태는 생산자재의 공급은 물론 그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안정적이며 경영에 따른 위험이나 이익이 모두 생산주체에 귀속된다.

둘째는 계열주체가 생산요소를 약정된 가격으로 생산주체에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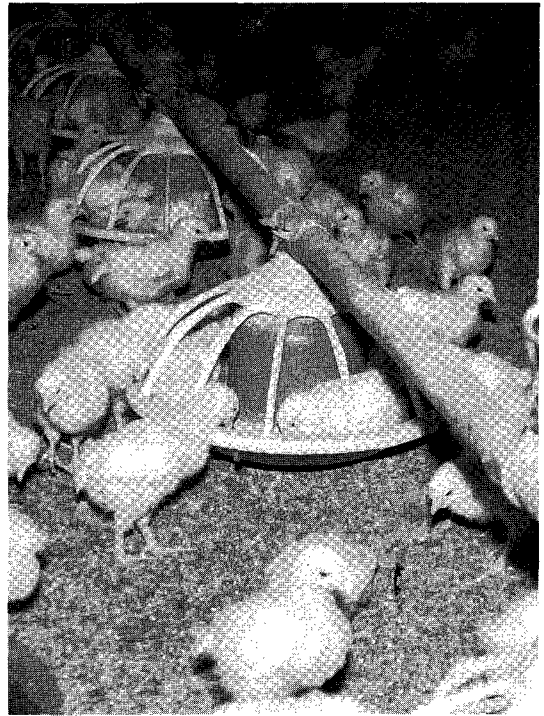
물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계열주체가 구매해 주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생산주체가 경영을 주도하면서도 경영에 수반된 위험부담을 계열주체와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생산요소나 생산물의 구매 및 판매가격을 정하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가격의 진폭이 심한 생산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셋째는 계열주체가 일체의 생산자재를 생산주체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하는 형식으로 조달해 주고 사육기술에 따른 기술지도 뿐 아니라 유통판매까지를 계열주체가 맡아서 수행하는 형태로서 사료 요구율형 또는 사료 효율형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육계의 계열화 사업 같은 것으로 이 형태는 경영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을 계열주체가 부담함으로써 생산주체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고 생산능력에 따라 생산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능률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농가의 노력의 대가가 소득과 연결될 수 있어서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 형태는 경영의 주도권을 계열주체가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생산주체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왜소해져 생산주체가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 것 같은 자칫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에 따른 보수의 지급기준이 되는 각종 지표를 정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영전체의 과정을 하나의 경영주체가 종합적으로 주관함으로써 계열화 체계, 즉 일관경영 체제가 갖게 되는 일반적 기대효과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간재에 대해서는 과세부과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영체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절세가 가능하다. 즉, 최종 생산물 처분단계에서만 이윤을 부과함으로써 이윤의 중심점을 단일화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개별 경영체제에 비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자재의 조달, 사육관리, 가공처리 등의 상품화 과정이 하나의 경영체가 주도함으로써 제품의 규격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제품의 위생적 처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경영주체는 자기상표에 대한 광고와 홍보를 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계열주체와 수평적으로 종합할 경우 공동 광고활동이 가능하여 제품의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일관 경영체제에서는 전체의 생산을 소수의 경영체가 관장할 수 있으므로 생산조절을 위한 의사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수급조절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품의 수출입에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생산의 과잉 또는 진폭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다섯째, 자재의 공급업체와 같은 연관 산업과의 거래 교섭력을 높여 산업간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산업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효과를 바탕으로 장기적 발전



을 위한 기반 구축이 가능하며 중국적으로는 총체적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2. 시장개방에 따른 육계 계열화 경영의 당위성과 가능성

표1에서 보는 것처럼 '93년 12월을 기준으로 '92년 같은기간에 비해 육계 사료는 1.4%의 증가를 보여 간접적으로 닭고기 소비가 정체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육계가격도 6, 7, 8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생산비선 이하에서 거래가 되어 업계의 불황이 극심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93년의 경우 쇠고기가 약 13만톤 수입이 되어 이같은 영향이 나타나는데, 만일 20만톤 이상이 수입된다면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소비 위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육계 계열업체만 노력한다고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없으며 정부가 농업, 농촌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합법적인 범주내에서 정책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선도적 생산능가, 계열업체,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1. 육계가격, 사료생산량 및 병아리 가격

구분 월	육계가격(원/kg)		육계사료량(천톤)		병아리가격 (평균)
	'93	'92	'93	'92	
1	1,338	908	79.3	105.4	250~350
2	881	970	90.3	87.3	100~150
3	701	992	109.1	90.5	70~250
4	780	982	107.1	104.8	50~150
5	853	1,079	103.3	122.0	50~100
6	1,357	687	116.4	137.7	250~390
7	1,385	862	130.6	130.5	350~400
8	1,159	937	115.7	104.4	380~420
9	610	614	116.4	104.8	50~180
10	544	575	100.3	90.9	120~220
11	802	830	93.6	75.2	280~350
12	868	1,194	94.4	93.0	310~350

자료 : 축협중앙회, 『축협조사개보』, 1994.2.

표2. 시장개방 파급영향에 대한 닭고기 가격 및 수급변동 예측

년 도	가 격 (원/kg)	소 비 량 (M/T)	국내생산량 (M/T)	수 입 량 (M/T)	자 급 율 (%)
1994	2,903	238,042	238,042	0	100
1995	2,822	239,485	231,785	7,700	97
1996	2,761	237,422	227,022	10,400	96
1997		248,181	248,181	65,305	73
(7월 이전)	(2,731)	(118,858)	(182,875)	(6,500)	(95)
(7월 이후)	(1,654)	(129,323)	(129,323)	(58,805)	(55)
1998	1,635	259,630	139,558	120,071	53
1999	1,616	261,630	138,082	123,548	52
2000	1,597	264,198	136,605	127,593	51
2001	1,578	215,984	135,129	80,855	62
2002	1,559	223,312	133,652	89,660	59
2003	1,540	231,080	132,175	98,904	57
2004	1,521	239,317	130,699	108,168	54

자료 : 우리 축산 살리기 대토론회, 1994. 2.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개방의 파급영향에 대한 닭고기 가격 및 수급변동 예측에 의하면 닭고기 연간 소비량은 고기류에 대한 지출 증대와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닭고기의 가격이 쇠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기 때문에 '97년 6월까지 약간 감소한다. 그 이후 자유화의 영향으로 계속 증대되어 2004년에는 239,317M/T로 예상된다. 가격 또한 '97년 6월까지 거의 현수준에 머물다가 '97년 7월 자유

화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04년에는 1,521 원/kg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생산량 및 자급율을 보면 2004년도 국내생산량은 '94년에 비해 45%가 감소한 130,699M/T으로 자급율은 5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시 구체적 시산 결과

표3. 닭고기관련자료 추정

항 목	내 용	비 고
①닭고기 국내 생산량(Q <sub>1</sub> )	238,042 M/T	1994년도 예측치
②닭고기 국내 소비량(Q <sub>2</sub> )	238,042 M/T	1994년도 예측치
③수입자유화 이전 닭고기 국내가격(P <sub>1</sub> )	2,432 원/kg	1994년도 도매가격 추정치
④닭고기 CIF가격(O <sub>1</sub> )	1,063 원/kg	미국닭고기 통관가격추정치
⑤수입 닭고기 가격 추정치	1,275 원/kg	CIF 가격에 관세 20% 적용 추정치
⑥수입 자유화 이후 국내 소비량 추정치(Q <sub>1</sub> )	259,630 M/T	추정치

자료: 우리 축산 살리기 대토론회, 1994. 2와 축협중앙회, 『축협조사제보』, 1994. 2에서 추정.

는 어떠할까? 외국의 값싼 계육 상품이 통제없이 국내에 무차별하게 들어올 경우 그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닭고기 수입 개방 시 양계농가가 받는 손해, 소비자가 누리는 잉여의 증가, 정부가 거두어 들이는 조세 등의 구체적인 시산결과는 계산해 보면 표3 및 표4와 같다.

표4. 닭고기 수입자유화에 의한 손익과 사회적 순이익

단위: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①생산농가의 단기적 손실액	2,754.1	$238,042 \times (12,432 - 1,275) \times 1,000$
②정부 관세수입액	45.8	$21,588 \times (1,275 - 1,063) \times 1,000$
③소비자 잉여의 증가	550.4	□ P <sub>1</sub> ADBP <sub>1</sub> 의 면적
④사회적 순이익	-2,157.9	②+③-①

결국 사회적 순이익이 부(-)인 2,157.9억 원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농가의 단기적 손실 또한 2,154.1억 원으로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 이러한 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은 일부 선도적 계열업체 차원의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정부가 농업, 농촌을 살리겠다는 비사한

표5. 일본 및 국내 생산원가 비교

구 분	일 본 ('92)	국 내 일반농가 ('93)	국내우수 농장평균 ('92.7~'93.6)	국 내 계열업체 평균	H 계열회사
원 가	965	944.8	915.1	864	752
비율(%)	128.3	125.6	121.7	114.9	100

자료: 계열업체에 관한 통계는 김홍국, "닭고기 대일수출의 문제점과 전망" 참조.  
국내 우수농장평균 통계는 대한양계협회, 『1992년도 양계경영진단 사업평가 분석 보고서』, 1994 참조.

의지를 가지고 합법적인 범주내에서 정책적, 기술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선도적 생산 농가와 계열업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8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내육계산업은 비교열위에 놓여 있는 육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결과 일부 선도적 계열업체를 중심으로 한 계열화의 정착이 육계산업의 기초를 다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구조적 모순에 의한 비용의 중첩을 배제함으로써 표5에서 보는 것처럼 생산비의 절감을 상당 수준 이룩하였고 당장 경쟁력 우위 확보는 안된 상태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는 고무적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육계계열화의 조속한 성숙이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육계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육계계열화 체계를 하루 빨리 정착시킴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한다면 국내 닭고기의 소비는 물론,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는 일본에 수출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계